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가련하다, 타인의 옷을 탐하는 자여!

요즘 타인의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한 고전 속 한 장면을 자주 생각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탐하는 행위의 의미를 응축된 몇 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헤토르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트로이의 왕자다. 이 헤토르 진영은 제우스 신의 도움으로 이제 막 트로이 전쟁에서 결정적 승세를 타는 참이다. 이때 헤토르가 상대 진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나타난다. 당연하지만 자신에게 무구가 없거나 형편없어서가 아니다.

분노한 영웅 아킬레우스가 싸우기를 계속 거부하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부하인 파트로클로스가 대신해서 싸우러 나간다. 이때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나간 것이다. 자신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아킬레우스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파트로클로스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헤토르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은 것이다. 이런 헤토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토르가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토르가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 진영의

사기 문제였고 공동체의 운명이었지만, 개인의 명예심과 영웅심도 있었을 것이다.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신의 솜씨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들 무구는 분명 물건이다. 물건은 쓰임새와 다루는 사람에게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이 무구가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영웅이 무구의 가치와 상징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헤토르가 비록 이 최고의 무구를 손에 넣기는 했지만 곧 자신은 무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운명을 미리 아는 제우스는 탄식한다. “가련하다!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너는 죽음을 생각지도 않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 떠는 가장 용감한 전사의 불멸의 무구들을 입고 있으니 말이다.” 제우스의 탄식은 한낱 인간인 헤토르가 불멸을 상징하는 무구를 욕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우스는 얘기는 사람일지라도 경계를 넘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중심을 잃은 판단과 절제력을 잃은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는다고 해서 아킬레우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왜 헤토르는 굳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었을까? 자신은 ‘예외’라는 확신에서다. 자신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자신을 늘 예외로 인식하는 태도에는 자신의 ‘절대적 예외성’을 향한 욕망의 의지가 작용한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예외인가 하는 것이다. 예외를 즐겨 만드는 사람은 보편적 법례와 규칙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은 특별한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에 지배받지 않는 예외가 있는가? 결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예외적 결정과 선택을 주저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헤토르의 결정은 요즘 난무하는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예외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헤토르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지만 우리가 직접 보는 현실의 ‘자기 예외’는 하나같이 비후하고 천박한 합리화와 참담한 무지의 망목성에서 나온다. 아킬레우스의 무구가 상징하고 은유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무지의 망목에 대한 각성의 요구이다. 감당하지 못할 무(무)에 대한 절제 없는 욕망의 질주는 결국 욕망하는자인 우리 자신을 파괴한다. 자신은 ‘예외’라고 믿는 사람, 자신을 위한 예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를 규칙으로 만들어 예외가 상례가 되게 한다. 이는 위험하고 무지한 것이 거울 없는 닫힌 방에 혼자 사는 것과 같다. 거울 없는 방에는 오직 나 자신만 있어서, 외부로 나와 연결되는 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결코 돌아볼 수 없다. 이 방에는 오직 자신을 향한 자신의 시선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무도한 예외가 ‘예외’로 인식되지 않는 닫힌 방이다. 거울 없는 방에 사는 자, 그래서 감당 못 할 타인의 옷을 함부로 탐하는 자여, 가련하다! 이들이 누구라고 한들 자신만을 위한 비후한 ‘예외’에 누가 함께 하겠는가!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대학교 교사

절망 속에 핀 꽃

툼이라고 없다. 주변을 돌아보니 절망이 철조망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다. 그 절망을 없앨 수는 없을까. 있다. 딱 하나. 그것은 나를, 내 몸을 천길만길 절벽에 던지는 일이다. 절망을 던지려고 나는 간다. 땅끝 어느 절벽에서 절망을, 아니 나를 던지리라. 세상은 절망뿐이다. 전태일과 5.18이 그랬고 세월호와 김용균이 그랬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절망이 내는 소리다. 세상 구석구석 절망으로 가득하다. 흑여 어쩌다 희망을 꿈꾸면, 그 순간 녀석도 여지없이 눈을 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망하려는 순간, 녀석은 맹렬하게 일어났다. 절망은 그렇게 절망을 먹고 살았다. 그 자갈치듯한 절망을 버리러 절망에게 간다. 그러 그와 함께 절벽에 선다. 저 시커먼 절벽 아래, 시커먼 파도를 본다. 그를 붙들고 하소연한다. ‘제발 좀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그리고 녀석과 함께 뛰어내린다. 같이 죽는 거다. 그때였다. 녀석이 내 귀에 속삭인다.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려 봐! 내가 찾는 희망은 나랑 일관성 쌍둥이거든” 깜짝 놀라 한발 물러선다. 녀석을 똑바로 본다. 땅끝은 우리가 명명한 끝일 뿐, 이곳의 끝이 아닌 저 곳의 시작이었다. 질투처럼 끝까지 보이는 물속으로 섬들고 끈끈하게 손을 잡고 있다. 그가 잡은 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찾던 희망이었다.

까만 나팔꽃 씨의 속살이 허황듯, 저 검은 절망 속에 은순백의 희망이 숨어 있었구나. 전태일과 김용균이 절망이 아닌 수많은 노동 해방이란 희망의 씨앗이었음을, 5.18의 피가 민주화의 꽃이었음을, 그토록 내가 찾던 희망은 바로 그 절망 속에, 그 포장지에 씨어있었음을 본다. 절망을 쫓아내면 희망도 달아나고, 희망을 쫓으면 절망도 따라온다. 미움 없이 사랑 없듯이, 절망 없는 희망도 없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희망도 그토록 멀리한 절망도 한 몸, 한 가지다. 꿈 없는 사람은 절망조차 없고, 꿈 있는 사람만이 절망한다. 절망은 조연, 주인공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녀석들을 헤아려준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야간자습이 되겠는가. 까짓 방향 좀 했기로서니 두들겨팼으니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 절망들을 껴안는다. 녀석들 마음을 어루만진다.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절망이 절대 희망의 줄임말임을 안다. 그 절망의 밑까지, 저 뿌리 끝까지 내려간다. 그 끝에 작은 불빛 하나가 마중 나온다. 이제 온 길을 거슬러 오른다. 미소 가득, 발걸음도 가볍다. 저 나라 밑에서 깨진 뺨 조각 같은 절망을 데리고 올라온다. 절뚝절뚝 희망도 다리를 절며 따라온다. 이제 살 일만,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절망 속에 핀 꽃, 절망이 꺼안고 있는 것은 희망이었다.

기고



차예지
예지책방 대표

5·18민주화운동 그림책으로 '건너가기'

것들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성동, 정혜원 교사로부터 초등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오월의 영웅’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들어봤다. 교실 안에서의 실천을 넘어 사회와 함께 호흡하자는 제안을 건네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교사였다. 평일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 책방을 찾아온 선생님도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너 : 너로 피어나라’이다. 지난달 16일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했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전일빌딩 245, 주남마을 등 광주에 있는 5·18 사적지 일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사적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사적지가 배경이 되는 그림책을 낭독했다. 주남마을 해설을 듣고 흥성담 작가의 ‘운동화 비행기’를, 전일빌딩과 구 전남도청 일대 해설을 듣고 권운덕 작가의 ‘썩스탕’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듣고는 고정순 작가의 ‘봄꿈’을 낭독했다. 각 사적지에 대한 설명도 현지 초등학생 교사인 김지연, 심원지, 박정은씨가 맡았다.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이유는 거리와 인원에 관계없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는데 전남과 전북은 물론

이고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세 번째는 ‘가 : 가치를 발견하다’이다. 6월 22일에 책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의 오월과 여순항쟁을 연결해 그 안에 담긴 가치를 1980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현대사 발전 과정 속에서의 오월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순항쟁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점옥의’의 오승민 작가와 여수에서 활동하는 밴드 레이크로스아와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예술과 만난 오월정신과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한다. 이번 프로그램 중 사례발표와 사적지 해설을 맡은 강사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은 1990년대 생 젊은이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반적인 진행을 맡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던 1960년대생이다. 예지책방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림책과 함께 합니다”라는 뜻을 품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그림책으로 '건너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1960년대 생과 1990년대 생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오월정신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5·18기념재단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 오월학교’ 공모사업은 일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상별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예지책방은 2021년부터 4년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평화감수성-빼기와 더하기’, 2022년에는 ‘평화감수성-곱하기와 나누기’, 2023년에는 ‘그 날이 이 날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열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그림책으로 '건너가기'’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건너가기’에는 각자 숨겨진 뜻이 있다. 첫 번째는 ‘건 : 건네는 말’이다. 지난 4월 17일 책방에서 모여 진행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담고 있는 ‘절대 공동체’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지하철 공사 차질 어떤 명분으로도 안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일부 구간이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하철 공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구간인 7공구와 10공구에 대한 4차 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7공구(전남대 후문-오치동 육교 2.5km)와 10공구(본충동 오비맥주공장-양산지구 사거리 1.8km)는 2단계 최고의 난공사 구간으로 꼽히는 곳이다. 7공구는 업체들이 현 공사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며 공사금액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10공구는 참여 업체들이 예정보다 높게 써내 유찰됐다. 최근 고물가속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장마다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광주 지하철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공사비를 증액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광주시는 지역업체 참여 지분을 낮춰 전국 단위 업체의 참여

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광주시는 7공구와 10공구가 난공사 구간이란 점을 감안해 공법 변경도 검토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 공사가 2019년 시작됐지만 3년 늦어져 2026년 완공 예정이고 지난해 12월 착공한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호선 공사만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더 늘어선다면 광주시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하철 공사 장기화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로도는 이미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앞으로도 5년을 참아야 하는데 여기서 공기가 더 늘어난다면 교통 지옥을 견딜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민과 약속한 개통 시점은 지켜야 한다.

학동참사 3주기, 안전사회 구축 계기 삼아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학동참사)가 어제 3주기를 맞았다. 사고 발생 시간인 오후 4시 22분 즈음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열린 추모식은 사고 유가족·피해자들이 참여했고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학동참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참사 현장인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안 건물은 대부분 철거됐고 올 하반기 착공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학동 참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수사과정에서 날립 철거 공사와 재개발과 관련한 비위가 드러나 명백히 인재임이 밝혀졌지만 원천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 회사들은 법정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가족 19명 중 11명이 최근 1년새 자살을 고민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비롯해 수습에 참여했던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포함한 피해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치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백한 인재였던 참사 이후에도 화동동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와 이태원 참사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학동 참사가 단지 불행한 사건에 머물지 않고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병폐 등을 근절시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추모공간 조성 사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지난 1일은 의병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의병의 날’이었다. 2010년 제정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의병의 날은 여느 법정기념일 못지않게 뜻 깊은 날이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로 지정한 것은 임란 당시 의병장 객재우가 장의한 날(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의병 활약이 활발했던 의병의 나라다. 일반적인 의미의 의병은 임란과 항일 당시 외세 침략에 맞서던 민간인 조직을 가리키며 국가 존망이 위태로울 때 지군의 안위를 지키고 기거이 정장으로 달려갔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있었다.

얼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진주 토지주택박물관이 의병 진압 작전일지인 ‘진중일지’ (陣中日誌) 등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진중일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보병 제14연대가 1907년 7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의병 진압을 위해 기록한 문서로 일제 만행은 물론 밀정, 일진회원들의 매국 행위도 담겨 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있던 우리나라 의병부대 활약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병의 날’이 들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로 지정된 6일은 예로부터 망종(芒種) 때 제사 지낸던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고려 현종 5년(1015년) 6월 6일에 병사들 유해를 안장했으며, 조선시대 때도 6월 6일 병사들 유해를 매장하고 예를 지켰다. 절기상 소만과 하지 중간에 든 망종(양력 6월 6일경)은 벼와 같은 수염이 있는 종자를 뿌리는 시점이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무렵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하는 건 그런 연유다.

오늘날 역사 왜곡 등 일본의 교묘한 ‘침략’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적군에 촉박된 ‘라인야후 사태’는 고도의 전략에서 진행된 경제적 침략일 가능성이 높다. 구한말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록한 저들의 ‘진중일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술책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물론 ‘의병정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진중일지 (陣中日誌)

의병·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